

베이비붐 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WLB·Work-Life Balance)을 위한 공공신학적 제안*

- 활동적인 삶(*vita activa*)과 명상적인 삶(*vita contemplativa*)의 균형 관점에서

이상훈 (새세대 고령화연구소)

I. 서론

II. 베이비붐 세대의 '일과 삶'의 불균형

1. 생계를 위한 일로서의 베이비부머들의 직업관
2. 노동시장 재진입의 장벽

III. 베이비붐 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

1. '일과 삶의 균형'
2. 일과 삶의 균형의 사회경제적 정당성과 행복

IV. '활동적인 삶'(vita activa)과 '명상적인 삶'(vita contemplativa)의 균형

1. '일과 삶의 균형'과 '소명적' 일 개념을 넘어
2.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활동적인 삶'과 '명상적인 삶'의 균형

V. 결론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7.37.05>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A8019884)

• ABSTRACT •

A Public Theological Ethical Approach to Work-Life Balance of
Babyboomers: From a Perspective of the Balance between *Vita Activa*
and *Vita Contemplativa*

Lee, Sang Hoon(New Generation Institute of Population Aging)

This paper aims to come up with a public theological approach to work-life balance for Korean baby boomers(1955 to 1963 birth cohorts) from an integrated or perspective of *vita activa* and *vita contemplativa*. Many Korean baby boomers are not financially prepared for retirement because they have been held responsible to care for their children longer than they planned, as well as now also believed to assume the role of caretaker for their elderly parents. They are often considered sandwiched between aging parents who need care and/or help and their own children in their twenties to thirties who are not economically independent. It can be assumed that many boomers living in this sandwiched generation continue to experience economic insecurity and have to work past the official retirement age. Though in need of urgent reemployment, they have difficulties in returning to the active labor force than younger workers amid persistent challenges such as ageism or age discrimination and high unemployment. Unfavorable labor market conditions may compel baby boomers who need to be reemployed to support themselves economically often to engage in dehumanizing labor and let them fall into the category of what is defined as *animal laborans*. It is in this context that work-life balance practices are introduced to support the efforts of employees to split their time and energy between work and the other important aspects of their lives. This study seeks to develop and offer an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work-life balance by drawing on a pneumatological harmony of *vita activa* and *vita contemplativa*. It will reveals that there is no need of inherent conflict and dichotomy in a dualistic thinking between work and life in-

cluding leisure, worship, and rest; rather they are mutually complementary. This holistic perception of work and life relationship can be adequately dealt with and persuasively formulated in a pneumatological theology of work reinterpreted from a public theological perspective.

Key words: Work-Life Balance, Baby Boomers, Vita Activa and Vita Contemplativa, Public Theology, Work, Vocation, Pneumatology

I. 서론

최근 엔에이치(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 “중산층의 평균적 상태와 자기 인식”은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삶의 질 면에서 부정적이며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¹⁾ 이 연구소가 최근에 펴낸 ‘2016 대한민국 중산층 보고서’는 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을 중산층의 위태로움 및 불안정함과 이를 반영하듯 중산층으로서의 자신들에 대한 인식이 이 계층과 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자들 중 약 80퍼센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중산층에 속하나 자신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아 수치와 자료에 따른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간의 불일치를 보였다.²⁾ 위 연구는 또한 중산층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기 원하나 불가피하게 일에 치우침으로 양자 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중 가장 많은 수(40%)가 가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현실은 과도한 업무 탓에 일 이외의 영역에 바람대로 참여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

그나마 이러한 불안정한 중산층의 지위마저도 노후 대비의 구체적 실행 여부와 결부될 때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된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40%만이 그렇다고 답한 반면 응답자들의 60%에 이르는 중산층 10명 중 6명은 못하고 있거나 하더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위의 낮은 노후 준비 정도가 내비치는 우리 사회

1) 이분영, ‘중산층 80% “난 하위층”...40%는 은퇴 뒤 빈곤층 전략 우려’, 『한겨레』, 2015년 12월 2일자.

2) 위의 글.

3) 위의 글.

4) 송보미, ‘중산층 10명 중 4명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략”’, 『Economic Review』, 2015년 12월 2일자.

의 속사정은 이로 야기되는 우려만큼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중산층 지위마저도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⁵⁾ 뿐만 아니라 저조한 노후 준비는 사회경제면에서 국가 전체에 잠재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기에 고령화가 점차 심화되는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한국 중산층의 문제는 이 계층의 중핵을 구성하는 베이비부머들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대략 741만 명으로 추산되는 우리 사회 베이비붐 세대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숫자는 약 546만 명 가량이다. 이 중 59퍼센트(약 324만6000명)는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생계형 임금근로자들로 기능인력이거나 농림어업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다. 다시 말해 절반 이상이 해고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다. 뿐만 아니라 퇴직 후 재취업의 필요성은 높은 현실에 반해 실제로 가능성은 낮은 데다 구직에 성공한 임금 근로자의 40%가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돼 재취업 환경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⁶⁾ 또한 베이비부머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여기거나 자식에게 의존하는 노후는 고려하지 않는 세대적 성향이 있다. 이 ‘긴 세대’는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돌봄의 책임을 동시에 떠맡아야 해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충분히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⁷⁾ 게다가 최근 우리 사회를 특징짓는 고령화와 청년고실업 등에 따른 부모와 성인 자녀 부양 기간의 연장은 ‘샌드위치’ 처지에 놓인 베이비부머의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⁸⁾ 더구나

5) 위의 글.

6) 황인수, ‘베이비부머’라 부르지 마라!, 『시니어비즈』, 2015년 4월 17일자.

7) 김지경, “베이비붐세대의 경제적 부양부담”, 『노동리뷰』, 2010년 6월호, 22.

8) 이진석·김지섭, ‘5060 퇴직자 절반, 노후자금으로 大卒자녀 부양’, 『조선일보』, 2017년 3월 22일자; ‘성인자녀 둔 부모 39% “졸업·취업·결혼해도 자식부양”’, 『연합뉴스』, 2016년 6월 2일자.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64591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탓에 조기퇴직이나 실직 혹은 이에 따른 불안정한 소득 등으로 이 세대의 연금보험료 납부 실적이 저조해 70%가 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⁹⁾ 그러므로 낮은 노후 준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베이비부머 퇴직자 및 퇴직 예정자에게 우리 사회의 취약한 사회복지와 부실한 노후 대책이 미래를 암울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¹⁰⁾

한편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야기되는 새로운 노동수급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과 정년을 맞은 베이비부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인적자원으로 보는 관점과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더구나 베이비부머들의 낮은 노후준비 정도와 재무영역이 은퇴준비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인식은 일자리가 그들의 가장 큰 고민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 이처럼 베이비부머들은 계속해서 일하고자하는 재취업의 현실적 필요를 안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직면한 한국 사회는 그들의 은퇴와 은퇴 이후의 생활과 관련해 이전과는 다른 관점과 태도가 요구된다. 따라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소모된 인적자원”이 아니라 “직업적 경험과 노하우와 전문성”을 지닌 “사회적으로 소중한 자산”으로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그들의 니즈가 충족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¹²⁾

그런데 재취업이나 퇴직 후 노동에 대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현실적 필요에 대한 주목과 분석이 일/직업에 집중하는 것의 실효성에 관해 다시 생

9) ‘베이비부머 노후 준비, 정부가 적극 도와야’, 사설, 『한국일보』, 2016년 12월 29일자.

10) 정성호, 『중년의 사회학』(서울: 살림, 2006), 62-70.

11) 위의 글.

12) 김태유, 『은퇴가 없는 나라·국가 경제를 이모작하라』(삼성경제연구소, 2013), 31-33 그리고 제4장; 손유미·이성, “베이비부머세대 제2인생설계구축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3.

각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일/직업의 비중이 결코 적지 않지만 일 이외 삶의 부분이 갖는 중요성의 소홀은 피상적인 분석이나 해법을 위한 시도로 머물 수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이슈의 복합적인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제시 노력이 한계에 부딪힐 여지를 남긴다. 위의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적절한 이해와 해법 마련은 일 위주(본 연구가 다룰 ‘활동적인 삶’에 해당)의 접근과 논의가 감안하지 않거나 놓치기 쉬운 영역, 즉 일 이외의 삶의 측면(‘명상적인 삶’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여)을 충분히 강조해야 하는데 있다. 일에 대한 편중된 강조가 일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기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반해 오히려 삶에 대한 혹은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주목이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주장이 제기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세대에게 일/일자리가 필요한 이유는 단지 “생계”유지와 같은 경제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확인”하는데 중요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¹³⁾ 나아가서 ‘회사맨’으로 주말 출근과 초과근무를 주저하지 않았던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 경제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그 기간 자신들의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계획과 준비는 뒷전으로 밀려났다.¹⁴⁾ 따라서 그들에게 일뿐만 아니라 일 이외의 영역에서 펼쳐질 수 있는 은퇴 후의 제2 인생 준비가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기에 이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일과 삶의 구도에서 삶, 즉 일 이외의 영역(가령 취미와 유희 등)이 일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양자의 균형 대신 일에 편중된 인식과 이에 따른 시스템이

13) 손유미·김찬훈,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창출과 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ix

14) 위의 책, viii.

나 문화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우리는 본 주제와 관련하여 행복과 ‘삶의 질’ 제고와 연결하여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행복과 삶의 질이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적에 속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주요 이슈이고 인간 삶의 우선순위란 점을 고려할 때 일/직업 위주의 이해 대신 ‘일과 삶’의 관계에서 후자를 충분히 고려하거나 양자 간의 적절한 ‘균형’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밝힌 대로 중산층 분류에 관해 수치와 자료에 따른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간의 불일치는 심리적 괴리와 재정적 불안정을 없애고자 일과 삶의 균형 지향적 노동을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한 일과 삶의 불균형은 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연장 뿐 아니라 팍팍한 경제현실과 살림살이에 더해 은퇴 전후 베이비붐세대의 행복과 생활의 질 하락을 지속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은퇴)교육이 ‘일과 삶의 균형’이란 틀에서 ‘삶’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비중을 높이는 실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직업 적성과 창업·재취업을 위한 (재)교육, 즉 ‘일’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더불어 삶과 비경제분야 혹은 일/직업 이외의 영역에 대한 바른 이해 및 행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일과 삶의 균형’이 양자에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이 되나 균형에 대한 이해가 도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정체될 수 있으며 직업 혹은 일(과 무급의 사회 참여 및 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일과 삶의 균형이 양자를 분리하는 이원론적 시각을 전제할 때 “직무 성과”와 “혁신”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조직과 맡은 직무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만족 등의 긍정 정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¹⁵⁾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15) 정예지 외,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직무 성과와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직무 만족과 생활 만족 간 긍정적 교호작용효과(Positive Reciprocal Effect)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45권 제5호(2016), 1478.

논의가 지금까지 시도한 것과 반대 방향의 접근인 “성과”가 “만족”에 영향을 미침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정당화되는 논의도 필요하다.¹⁶⁾ 이를 위해서는 직업인들의 “자기 주도성”(self-directedness) 혹은 “참여와 자기 개발”을 통한 성장 기회가 확보되어야 하며 그들에게 “각자의 재능을 활용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실현가능하다.¹⁷⁾ 그래서 필자는 ‘일과 삶의 균형’이 낳을 수 있는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혹은 이분법적 이해와 틀을 극복하고 직업인들의 “자기주도성”과 자기 개발을 통한 ‘성장’을 동시에 가져오기 위한 시도로서 ‘활동적인 삶’과 ‘명상적인 삶’의 유기적 관계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의 통합적 관점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 일에 대한 ‘성령론적’ 이해에 주목하도록 공공신학적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양자의 통합적 관점에 기초한 유기적 관계성의 모델은 베이비부머들이 일/직업적으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면서 동시에 삶의 질과 행복을 얻기 위한 일과 삶의 창조적인 조화, 즉 양자의 통합적 이해에 따른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관계 모형을 위한 활동적인 삶과 명상적인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II. 베이비붐 세대의 ‘일과 삶’의 불균형

1. 생계를 위한 일로서의 베이비부머들의 직업관

한국 사회에서 직업/일은 대개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갖고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흔히 선택보다 의무사항으로 이해되어 온 것이다. 즉, 일은 본인의 가치관이나 선호도 혹은 적성보다 생계라는 필요에 보탬이 되는 정도에 따라 인식되고 선택되는 경향

16) 위의 책, 1492.

17) Miroslav Volf, *Work in Spirit: Toward a Theology of Work*(Eugene,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1), 170, 177.

이 상존해왔다. 베이비부머들 역시 한국 사회에서 직업과 일이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서 극명하게 표현된 경우의 한 예다. 위의 전통적인 직업에 대한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들의 직업관과 일에 대한 생각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은 이전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근대 교육을 받은 고학력 세대로 높은 직업역량을 지닌 숙련된 인력들이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기에 경제 발전의 중심에 있었고 근면과 성실을 중요한 덕목으로 삼아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직업 활동에 종사하였다. 이에 따라 주말 출근과 초과근무 등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회사형 인간’이 그들을 특징적으로 드러내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위의 이유로 베이비부머세대는 ‘일과 삶’에서 ‘일’에 치우쳐 일 이외의 영역에 시간과 관심을 균등하게나 적절히 배분하지 못해왔다고 평가된다. 일에 치우침으로 삶과의 균형이 무너졌으며 후자를 소홀히 여긴 결과 일 이외의 영역에서 비롯되는 생활의 질이 현저히 저하된 채 지내온 경우가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¹⁸⁾

이러한 일 중심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현실은 베이비부머들에게 영속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그들에게 일/직업 위주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의무와 맞물려 있다. 그런데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이중으로 짊어지느라 자신의 노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세대적으로 ‘샌드위치’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¹⁹⁾ 이에 따라 재정적으로 부모에 대한 지원과 자녀에게서의 독립 경향이 특징인 “전통”과 “혁신”의 “양면적 가치관”을 지닌 그들이 계획하고 전제하는 만큼의 충분한 노후준비가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²⁰⁾ 게다가 노동시장 유연화의 영향으로 인

18) 김종관·이윤경, “업무구조, 조직문화, WLB제도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16권 4호(2009), 60.

19) 김지경, ‘베이비부머세대의 경제적 부양부담’, 22.

한 비정규직이나 조기퇴직 혹은 실직 등에 따른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은 노후준비 뿐 아니라 연장되거나 증가한 부모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퇴직 후 베이비부머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은 이중적이고 가중되는 부양의 짐 탓에 미흡하고 낮은 노후 준비 현실이 퇴직과 소득 불안정으로 가속화될 수 있는 “노년 빈곤층 문제”의 양산과 이로 말미암는 “사회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²¹⁾ 또한 직업과 일을 갖는 것은 베이비부머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과 직업이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²²⁾ 사실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재취업에 대한 의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업무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구나 경제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 참여의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²³⁾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은 “소모된 인적자원”이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문제를 이겨내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보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²⁴⁾ 따라서 이 세대의 경험과 가능성을 “직업적 경험과 노하우와 전문성”을 지닌 “사회적으로 소중한 자산”으로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그들의 니즈가 충족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이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산업 활성화, 노후 소득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며 시행될 필요가 있다.²⁵⁾

20) 방하남 외,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Work Life)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 10; 이상훈, “베이비붐세대의 직업인식 변화필요성: 호모라보란스(Homo Laborans)와 호모루덴스(Homo Ludens)의 통합적 이해”, 『기독교사회윤리』, 제35집(2016), 311.

21) 손유미·김찬훈,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창출과 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19.

22) 위의 책, 19.

23) 위의 책, 19.

24) 김태유, 『은퇴가 없는 나라·국가 경제를 이모작하라』, 31-33; 손유미·이성, “베이비붐 세대 제2인생설계구축방안”, 3.

25) 위의 글.

이슈는 이러한 강한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가 일/직업에 대한 바람직한 의식과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얼마나 ‘일과 삶의 균형’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이며, 삶의 측면을 배제하는 일의 강도나 업무의 양과 업무 시간의 양을 고려할 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지금까지 그들의 직업관과 일에 대한 인식은 앞에서 시사되었듯 생계 혹은 경제적 측면에 치우친 시각이고 이는 일 이외 영역의 소홀과 상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변화가 없는 베이비부머들의 재취업은 일과 삶의 균형 대신 일 중심의 불균형 현상을 확대재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2. 노동시장 재진입의 장벽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인적자원으로서 기술과 지식 및 경험이 계속해서 유효한 베이비부머들을 필요시 기술과 지식의 업그레이드 등 재교육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 세대 숙련노동력의 유출을 용인하거나 직업역량을 갖춘 은퇴 인력을 사회적 비용발생이나 복지 부담 증가의 요인으로 치부 또는 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²⁶⁾ 따라서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퇴직자에 대한 체계적 재취업 교육을 통해 제2의 경제활동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년층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세대에 비해 베이비붐 세대의 높은 학력과 고숙련 및 경제활동에 대한 여전한 의욕은 구직이나 노동시장 재진입의 가능성을 높인다.²⁷⁾ 게다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구수도 더 많고 고학력이기도한 베

26) 다음을 보라. 손유미,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창출 방안’, 『e-HRD Review』, 14-5호, 2011년 4월 6일자.

이비붐 2세대(1964~1974년생)가 베이비부머들을 뒤이어 퇴직하게 될 경우 양질의 재취업 일자리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²⁸⁾ 이들 세대의 역량과 능력에 걸맞은 일자리 구비를 통한 재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데 비해 현실은 이러한 바람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18%만이 직업 관련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재취업 시 상용직은 40.1%인데 비해 임시 일용직이 59.9%였을 뿐만 아니라 주로 단순노무직, 장치 기계조작 등에 종사하면서, 평균 시급이 1만5978원인 것으로 밝혀졌다.²⁹⁾ 퇴직 후 경제활동에 대한 베이비부머들의 희망과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일자리 수준 간에 나타난 괴리는 적합한 일자리와 재취업 시 일에 대한 만족의 여부 혹은 만족도의 고저 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이들 세대의 역량과 능력에 걸맞은 일자리 구비를 통한 양질의 재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노동시장 재진입의 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이슈는 사실 고령화와 100세시대로 인해 초래된 문제거나 그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³⁰⁾ 고령화는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을 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취업 희망의 동기가되면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즉, 나이가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 여

27) 정은주, '취업자 37%가 장년층, 베이비부머의 힘?', 『한겨레』, 2016년 10월 16일자.

28) 위의 글.

29) 위의 글.

30)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보라. Linda Gratton and Andres Scott, *The 100-Year Life: Living and Working in an Age of Longevity*, 안세민, 『100세 인생: 저주가 아닌 선물』(서울: 클, 2017), 특히 4장 “무형 자산: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들”. ‘일과 삶의 균형’의 관점에서 볼 때 저자들은 고령화시대 혹은 수명 100세 시대는 양자의 상관성과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시사한다. 다시 말해, 그들에 따르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 영역인 유형자산, 즉 돈과 직업이 중요하지만 ‘일’ 이외의 영역인 가족, 친구, 건강 등을 포함한 무형자산도 필요하다.

부에 변수로 작용하는 연령차별과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베이비붐세대의 노동시장 재진입 시 맞닥뜨리는 장벽과 일 중심 문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고령화와 깊이 관련 있는 연령주의(ageism)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연령주의란 “고령자 차별에 대한 논의에서 고정관념이나 편견과 같은 부정적 사고 및 태도에 주목하는 것”이다.³¹⁾ 연령주의에 따른 나이에 대한 편견과 신화(myth)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그 결과 베이비부머들을 사회경제적으로 위축시키고 2등 시민으로 강등시키는 차별이 직간접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³²⁾ 그리고 고령자 베이비부머들은 정년제와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또는 구직 시 연령으로 인해 불이익이나 고용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³³⁾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은 “확일화되거나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고정관념”에 따른 경우가 많다.³⁴⁾ 이처럼 “연령이라는 사회적 규정”이 직업역량을 평가하는 “정신적·육체적 능력”보다 더 “사회적 관계 및 활동능력”을 제한하고 “사회적 역할”로부터 배제시키는 근거로 작용한다.³⁵⁾ 그러나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고령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고령 취업자들이 겪는 ‘체계적인 연령차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직업역량 및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는 양자 간에 깊은 상관성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31) 김동선·모선희, “연령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령자 고용차별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23권 4호(2012), 94.

32) Ashton Applewhite, *This Chair Rocks*, 이은진,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 (서울: 시공사, 2016), 특히 6장을 보라. 연령주의(ageism)와 연령차별(age discrimination)은 양자가 혼용되거나 구별하는 시도는 다음을 보라. 김주현, “연령주의(Ageism) 관점을 통한 노년이해”, 『사회와 역사』 제82집(2009): 각주 4).

33) 김동선·모선희, “연령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령자 고용차별 인식”, 96.

34) 위의 책, 94.

35) Todd D. Nelson, ed.,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The MIT Press, 2004). 김동선·모선희, “연령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령자 고용차별 인식”, 94에서 재인용.

있다.³⁶⁾

그럼에도 앞에서 언급된 대로 우리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는 연령주의로 인해 퇴직 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고자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급격한 '사회적' 역할의 축소와 주변화 시키는 내몰림 현상이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초래할 수 있다.³⁷⁾ 나이에 대한 편견에 따른 연령주의적 차별은 인적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이 필연적이고 보편적으로 맞는 경험이란 점에서 광범위한 비인간화와 인권침해적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³⁸⁾ 이러한 연령주의적 편견과 연령차별은 '일과 삶의 균형'에서 일에 편중된 시각과 이를 강화하려는 정서가 그 근저에 있다고 본다. 이는 여전히 혹은 더욱더 일 중심의 삶을 강화하고 강요할 수 있으며 고령화된 베이비부머들로 하여금 과도한 노동력에 타의적이고 경쟁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에 편중된 구조가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이란 틀에서 인간화된 일과, 양자의 균형을 통한 인간 중심의 경제 활동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지금 까지 우리는 일과 직업의 목적을 생계에 연계시키는 사고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연령주의와 좁은 재취업의 문 등 비우호적인 사회

36) Raymond F. Gregory, *Age Discrimination in the American Workplace: Old at a Young Age*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2001); Erdman B. Palmore, *Ageism: Negative and Positive*(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99); 김동선·모선희, "연령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령자 고용차별 인식", 94.

37) 채윤경, '4050 마음의 병, 우울증', 『중앙일보』, 2013년 6월 8일자.

38) Ashton Applewhite, *This Chair Rocks*, 이은진,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서울: 시공사, 2016); Frank Schirmacher, *Das Methusalem Komplott*, 장혜경, 『고령 사회 2018: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서울: 나무생각, 2011). 또한 다음을 보라. Barbara Strauch, *The Secret Life of the Grown-Up Brain: The Surprising Talents of the Middle-Aged Mind*, 김미선,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 뇌과학이 밝혀낸 중년 뇌의 놀라운 능력』(서울: 해나무, 2011); Patricia Cohen, *In Our Prime: The Fascinating History and Promising Future of Middle Age*, 권혁, 『나이를 속이는 나이: 만들어진 시간, 중년에 관한 오해와 진실』(서울: 돌출새김, 2014).

경제적 현실과 조건은 일과 직업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연장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직업관에 기초한 베이비부머들에게 계속되는 생계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뛰어드는 재취업 혹은 제2의 경제활동은 일과 삶의 불균형 혹은 비인간화시키는 노동과 ‘고된’ 일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연령(주의)에 의한 취업기회와 직업세계에서의 차별 문화와 경험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일뿐 아니라 일 이외의 영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요구된다. 이는 베이비붐세대의 (근로)생애에 있어 후순위로 밀려났거나 취약했던 측면인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모델을 요구한다.

III. 베이비붐 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

1. ‘일과 삶의 균형’

위에서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 재취업 등 경제활동의 지속이나 재개란 일의 이슈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언급되었다. 우리 삶에서 일 이외의 영역인 비경제적인 측면도 주목할 필요가 있기에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다. 인간의 삶은 일뿐만 아니라, 가족, 건강, 여가생활, 성장 및 자기개발, 인간관계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일 이외의 삶의 각 부문은 고유한 가치와 기능을 갖고 있기에 개별 영역에 대한 “시간과 심리적 관심과 열정, 신체적 에너지”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삶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꾸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³⁹⁾ 이러한 목표와 노력이 ‘일과 삶의 균형’

39) 손영미 외, “일과 삶의 균형정책 도입방안 연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6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下)』(2006. 12), 987.

을 이루고 유지하는 내용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되며 직업적 성공과 생활의 질 제고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보내는 시간과 쏟는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직업/일 혹은 직장에서의 여가, 가정, 자아성장을 포함한 삶 영역에서 적절하고 균형 있게 분배하여 “총체적인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상태”를 의미한다.⁴⁰⁾ 일과 일 이외의 영역들은 사실 유기적으로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어 한 쪽이 다른 쪽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일과 삶의 균형’은 두 영역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파급 효과”는 가능한 줄이고 “긍정적인 전이”는 최대한 늘임으로써 조직과 개인의 높은 “성과”와 “생활의 웰빙”을 획득하고자 한다.⁴¹⁾ 이처럼 “총체적 삶(whole life)”에서의 만족감과 통제력의 회복에 기여하는 일과 삶의 균형이 가리키는 것은 일과 삶 양자가 서로 분리되거나 독립적이지 않고 깊은 관련 속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⁴²⁾ 삶, 즉 일 이외의 영역의 개선과 보완이 일과 직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이를 위해 상호의존적이라는 연구결과는 후자를 위해 전자가 충분히 혹은 적절히 확보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일과 삶의 불균형이 직업인의 직무 “스트레스”나 “이직”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⁴³⁾ 가

40) 정예지 외,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직무 성과와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 1474.

41) 같은 책; 손영미 외, “일과 삶의 균형정책 도입방안 연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987.

42) 정예지 외,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직무 성과와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 1476.

43) 김효선·차은아, “직장-가정 간 상호작용과 가족친화적 조직지원이 근로자의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2(4)(2009): 515-540; 김영조·이유진, “가족친화제도가 여성근로자의 경력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19(3)(2012): 71-99; 이선희·김문식·박수경, “가족친화적 경영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장-가정 갈등의 매개효과 가설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1(3)(2008): 383-410.

령 개인이 직장에서 갖는 “시간과 업무 압박”이 성과나 “창발적 사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⁴⁾ 반면 일과 삶의 균형은 직무에 있어 “성과”와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업인들에게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행동하도록 이끈다는 연구가 있다.⁴⁵⁾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과 이를 위한 제도의 “이행”은 일과 일 외의 생활 간 갈등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이직 의도 또한 낮추며 나아가서 “조직 효과성”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⁴⁶⁾ 그런데 일과 삶의 균형은 직무에 대한 만족과 삶에 대한 만족을 “매개”로 해서 “직무 성과”와 “혁신 행동”을 유발하고 이들에 영향을 미친다.⁴⁷⁾ 다시 말해 직업 혹은 일에서의 만족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삶의 만족이 직업/일터에 대한 만족을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이나 조직에 의한 일과 삶의 균형 시도는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를 끌어올리고 조직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 동시에 구성원들의 “삶의 만족도”까지도 제고한다.⁴⁸⁾ 이를 테면 높아진 “조직에 대한 몰입”과 “만족도”는 먼저 “조직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상승을 유발하고 이러한 결과가 선순환을 일으켜 제고된 “조직 만족도”는 이어서 “이직의도 감소, 개인 및 조직성과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된다.⁴⁹⁾

직무 만족과 삶의 만족의 긍정적 상호 관계를 보이는 이러한 양자 간의 정적인 상관성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나타나는가? 그

44) 정예지 외,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직무 성과와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 1473.

45) 위의 책, 1472-1473.

46) 위의 책, 1473; 문선희, “기업복지제도가 기혼 직장여성의 가정생활 과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족친화 제도의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8(1)(2013).

47) 정예지 외,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직무 성과와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 1473, 1479.

48) 위의 책, 1478.

49) 같은 책.

것은 일과 삶의 균형 시도에 따른 “조직의 혁신”, “조직 관리의 효율성”, “이직의도 감소”, “직무에 대한 몰입”, “창발적 사고”, “생활의 웰빙” 등이 산출되는 과정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직무 만족과 생활 만족 사이에 긍정적 교호작용효과(positive reciprocal effect)”가 발견되고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⁵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직무 만족과 생활 만족 간 관계가 상호 배타적이거나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서로 긍정적으로 교호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 영역에서 경험한 정서, 감정, 태도 등이 다른 영역으로 유입 및 전이되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의존적 관계(interdependent)”가 존재하고 기능하는 것을 뜻한다.⁵¹⁾

2. 일과 삶의 균형의 사회경제적 정당성과 행복

행복 추구가 인간 삶의 중요한 목표로 부인되지 않는다면 일중독으로 치닫는 성장사회에서 삶의 질을 강조하는 성숙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지극도 이 논의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되었지만 일과 삶의 균형은 업무와 생활 모두의 만족을 가져오고 이는 일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일과 삶의 균형은 ‘만족’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행복’ 담론과 연결되기에 둘의 균형 이슈를 다룸에 있어 ‘행복’ 이슈가 고려될 수 있다. 만일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 있거나 설사 일과 삶의 불균형 하에서라도 일의 목적이 행복과 무관하지 않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일과 삶의 균형’은 중요하다. ‘일과 삶의 균형’은 행복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의 재해석과 물질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는 이해의 필요라는 또 다른 논의를 끌어 들인다. 이러한 논의는 행복에 관한 경제 이외의 요소 및 관점에서의 접근이다. 개인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돈과 소득

50) 위의 책, 1472, 1474, 1478-1479.

51) 위의 책, 1479.

이 행복지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⁵²⁾ 다시 말해 일정 수준의 소득과 기본적 욕구(basic needs)의 충족에 이어지는 부의 증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행복의 증가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요소, 즉 일보다 ‘삶’의 측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행복에 대한 돈의 영향이 기대만큼 많거나 지속적이지 않기에 소득 혹은 일 중심의 행복에 대한 이해와 시각의 변화가 요구된다.⁵³⁾ 이는 일 이외의 영역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는 양자 간의 불균형 혹은 일 중심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와 삶의 만족이 경제적 부 혹은 일/직업이 아닌 이들 이외의 삶에서도 충분히 발견된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이를 테면 타인과의 유대와 신뢰 형성 및 자원봉사가 반영되거나 포함되는 ‘일과 삶의 균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아울러 이러한 행복 담론은 베이비붐세대를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의 필요성을 명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의 품격』의 저자 데이비드 브룩스는 현대 사회가 성공을 위한 “커리어를 쌓는 방법”에는 몰두하도록 유도하지만, “내적인 삶을 일구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툴거나 무능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⁵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문화는 “자신을 내세우고, 광고하며,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것을 강조하는 반면 “겸양과 공감, 그리고 정직한 자기적시의 태도”를 통한 인격 형성을 중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진단한다.⁵⁵⁾ 이러한 문화는 브룩스가 지적하듯 성공만을 추

52) 한국개발연구원(KDI),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분석체계 개발”, 2010. 6, 4-5, 184-185; 홍영립, “행복한 국민’ 과연 늘어날까”, 『조선일보』 2012년 1월 30일자.

53) Derek Bok, *The Politics of Happiness*, 추홍희, 『행복 국가를 정치하라』(서울: 지안, 2011), 35-54.

54) David Brooks, *The Road to Character*, 김희정, 『인간의 품격』(서울: 부키, 2015), 8.

55) 같은 책.

구하게 만들며 “실용적인 계산”을 원칙으로 삼고 “욕망[의] 만족”을 우선적으로 좇도록 한다.⁵⁶⁾ 그 결과 인생의 의미가 어디서 오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도덕적 목표”에 진지하고 깊이 있게 연구해보지 않아 “무의식적 권태”가 특징인 삶을 살아간다고 평가한다.⁵⁷⁾

나아가서 브룩스는 ‘행복’ 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것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브룩스는 인간 본성의 두 가지 상반된 면, 즉 아담 I과 아담 II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아담 I은 높은 지위와 승리를 추구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세상의 야망을 쫓는 본성으로 “외적인 아담”이라 일컬어진다.⁵⁸⁾ 이에 반해 아담 II는 “특정한 도덕적 자질을 구현”하길 원하는 “내적인 아담”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품성을 소유하길 바라는 측면이다.⁵⁹⁾ 아담 II는 선하게 “행동”할뿐 아니라 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남에게 “친밀한 사랑”을 베풀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본성이다.⁶⁰⁾ 브룩스는 아담 I의 부문에서 “성취하는 것”이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의 오류를 밝히고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래서 “도덕적 기쁨”이야말로 참되고 지속적이며 궁극적이라고 설명한다.⁶¹⁾ 그에 따르면, 성공과 아담 I의 영역에서 비롯되는 행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내적으로 덕을 쌓고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함으로 행복에서 벗어나 전진된 “깊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 보다 “높은 무언가를 목표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⁶²⁾ 브룩스의 지적대로 ‘선’한

56) 같은 책.

57) 위의 책, 9.

58) 위의 책, 6.

59) 같은 책.

60) 같은 책.

61) 위의 책, 41.

62) 위의 책, 11, 41.

행동을 넘어 선한 ‘존재’가 되어야 하며 아담 I에서의 성공이 “궁극적인 기쁨”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적인 삶을 일구는 방법”이나 “인격을 형성할 전략”을 갖지 못한다면 “내적인 삶 뿐 아니라 외적인 삶”도 지속가능하지 않기에⁶³⁾ 아담 I은 “결국” 아담 II에 의존한다는⁶⁴⁾ 점은 아담 II에 더욱 집중하는 삶을 추구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일과 삶의 균형, 특히 일 이외의 삶에 대한 집중이 단지 일과 일 이외의 영역에 기여하는 것 뿐 아니라 행복과 행복 이상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는 길임을 보여준다.

브룩스 역시 ‘일과 삶의 균형’에 해당하는 “균형”을 이루는 삶이 “외적 야망과 내적 염원” 간에 일어나 ‘행복’을 넘어 “궁극적 평온”을 얻게 되고 이는 아담 I과 아담 II 그리고 “도덕적 본성과 외적 능력”이 하나로 “통합”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⁶⁵⁾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는 단순히 일과 삶의 균형이란 원칙이 지닐 수 있는 경직성이나 일과 삶이란 이원론적 접근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나 맞닥뜨릴 수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극복하는 하나의 시도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브룩스는 “좋은 삶”이란 소명(vocation)을 따를 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본질적으로 마음이 끌리는 일”로 그의 소명 개념을 표현한다.⁶⁶⁾ 그렇다면 좋은 삶을 위한 조건으로서 소명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필자는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소명’을 재해석함으로써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63) 위의 책, 9.

64) 위의 책, 36.

65) 위의 책, 477.

66) 위의 책, 471-472.

IV. ‘활동적인 삶’(vita activa)과 ‘명상적인 삶’(vita contemplativa)의 균형

1. ‘일과 삶의 균형’과 ‘소명적’ 일 개념을 넘어

비록 ‘일과 삶의 균형’이 일정한 성과의 창출을 가져오는 양자의 균형이라는 바람직한 상태를 추구함에도 본질적으로 양자의 이원론적 분리와 이질성을 전제하기에 여전히 한 쪽으로 치우칠 여지와 가능성 속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면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여러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가령,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나 퇴직 전 조직이 시행하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일과 삶에 대한 내면적인 만족도”를 높이고 “고(高)성과”를 지향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가 퇴직 후 맞게 되는 작은 노동시장 재진입 기회가 일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⁶⁷⁾ 이처럼 생계를 위해 불가피한 재취업일수록 일과 삶의 불균형을 초래할 여지가 많고 ‘삶’보다 ‘일’에 편중되는 생활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하여 기독교 전통에서는 비교될 만한 논의는 ‘활동적인 삶’(vita activa)과 ‘명상적인 삶’(vita contemplativa)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활동적인 삶’은 “거의 모든 종류의 일”에 해당하는 것을, ‘명상적인 삶’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한 묵상과 사색”을 가리킨다.⁶⁸⁾ 명상적인 삶인 “진리”에 대한 “사색”과 깨달음을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여가(otium)에 대한 열중”이 동반되어야 한다.⁶⁹⁾ 여

67) 정예지 외,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직무 성과와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 1490; 유충현, “눈높이 낮춰도 베이비부머 세대 재취업 별 따기”, 『이투데이』, 2012년 6월 21일자.

68) 폴 마샬, “천직, 일, 그리고 직업”, 『바른 직업윤리』, 황성일 역(서울: 나침반사, 1993), 22-24.

69) 같은 책.

기서 ‘명상적인 삶’은 단지 묵상 혹은 사색뿐 아니라 이와 관련되거나 이를 위한 “여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독교 역사에서 중세기에는 ‘활동적인 삶’과 ‘명상적 삶’ 간에 이분법적인 분리 하에 전자보다 후자가 보다 고상하고 더 많은 의미가 부여되었으며 전자만이 참으로 자유롭기에 후자 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식되어졌다.⁷⁰⁾ 중세 말까지 존재한 이 같은 기독교의 이분법적 인식과 달리 루터는 수도원과 교회 중심으로 혹은 이들 안에만 머물든 성화의 삶, 즉 명상적인 삶을 세상과 공적 삶의 영역 안으로 이끌어내려 하였다.⁷¹⁾

명상적인 삶을 중시하고 강조하는 중세적 구분은 소명에 대한 이해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이 당시의 “참된” 소명 혹은 “적어도 가장 고상한” 소명은 ‘사제’나 ‘수도사’와만 관련되는 편향된 관점이 널리 퍼져 있었다.⁷²⁾ 반면 루터는 이 양자의 지나친 나눔과 이분법적인 이해에 맞서 세상 한 복판에서의 영성을 강조하며 양자 간의 그릇된 대비와 편향된 이해로 빚어진 불균형을 극복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테면 루터는 수도원과 교회로만 향하고 내부에만 머물려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바깥에서 “세속적인 삶을 거룩하게 살 것”을 강조하였다.⁷³⁾ 이러한 루터적 재구성과 재해석은 한편으로는 ‘거룩한 삶’으로서의 직업과 일의 영역에 대한 신학적 ‘의미부여’를 통해 활동적인 삶과 명상적인 삶의 균형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루터의 “좋은 의미의 세속화”와 달리, 필요한 “제어”가 없어지고 과도하게 “자율적인 문화”가 일어나면서 오직 현세 지향의 “세속적인 목적과 의미”만을 찾고자하는 왜곡이 발생하

70) 같은 책.

71) 이형기, “중세사회의 직업관과 루터신학에 있어서 직업의 의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178.

72) 폴 마샬, “천직, 일, 그리고 직업”, 24.

73) 이형기, “중세사회의 직업관과 루터신학에 있어서 직업의 의미”, 178.

게 되었다.⁷⁴⁾

루터의 소명 개념은 ‘활동적인 삶’과 ‘명상적인 삶’의 중세적 질서를 극복하려 한 점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신분과 직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그 분 앞에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일을 소명으로 이해하는 루터의 관점은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기원”) 타자에 대한 봉사(“목적”)이면 신학적 의미의 소명이기에 일의 내용이나 본질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다.⁷⁵⁾ 그런데 일의 “기원” 및 “목적”과 일의 본질 및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양자 간 바람직하지 않은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경향은 무의미하고 비인간적인 일에 대한 개선과 교정에 대해 소극적일 수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에서 일/직업, 특히 무의미하고 비인간화시키는 일/직업 중심으로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겨나게 하거나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다. 나아가서 루터의 소명으로서의 일에 대한 이해는 소명(vocation)이 점차 ‘직업’(occupation)의 의미로, 바람직하지만은 않게, 변화를 겪으며 의미의 이행이 일어나게 되었다.⁷⁶⁾ 더욱이 산업화가 진행 되면서 소명은 유급의 일/직업으로 축소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⁷⁷⁾ 소명(vocation)이 유급직업(gainful employment)으로 축소되고 “하나님께 드릴 주된 봉사(primary service)”라는 생각과 결합하면서 직업은 오늘날 마치 “종교의 위치”까지 격상되는 것 같이 되었다.⁷⁸⁾ 이처럼 경직된 이해에서의 소명과 유급직업의 지나친 등치(等値)는 ‘일이나 삶의 균형’보다는 한쪽, 즉 ‘일’로의 쏠림으로 양자 간에 불균형이 유발될 가능성

74) 위의 책, 179.

75) Miroslav Volf, *Work in Spirit: Toward a Theology of Work*(Eugene,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1), 107.

76) 위의 책, 107-8.

77) 위의 책, 109.

78) 같은 책.

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소명에 관해 폴 마샬(Paul Marshall)이 폭넓고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에게 있어 소명은 “피조 세계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며 돌보는 겸손한 봉사”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옳은 일을 실천하는 것에 더해 가구를 제작하고, “건축하며, 놀이하듯, 먹고, 잠자는 것”에 이른다.⁷⁹⁾ 인간 경험의 넓은 범위에 걸치는 그의 소명이해는 일과 삶, 즉 일 이외의 영역까지 이르되 여가와 신자의 예배까지 망라한다. 직업 및 지위와 신분을 포함하는 일상적인 삶의 내용을 아우르는 지상에서의 “세속적인 삶”을 거룩하게 사는 것, 즉 일과 직업 뿐 아니라 모든 활동에 대한 거룩한 의미 부여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생각은 일과 삶의 이분법적 인식을 넘어서 양자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에 더해 ‘일과 삶의 균형’과 양자 간의 관계가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소명의 다중성 또는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가 말하는 “공시적(synchronic)이고 통시적(diachronic)인 복수 직업(plurality of employment or jobs)”에 대한 설명도 제시되어야 한다.⁸⁰⁾

또 다른 이슈는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이전의 연구에서 다루지지 않은 부분과 관련된다. 지금까지는 일과 삶의 균형이 직무 및 생활 만족을 통해 조직성과와 혁신행동을 제고하는가의 여부가 연구되었다. 그러나 정예지 외가 밝힌 것처럼 ‘만족과 성과’ 중 무엇이 우선인지에 관한 논의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시도된 것과 반대 방향에서 접근하는 “역 인과 모형”, 즉 개인의 업무성과와 창의적 행동이 직무와 삶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와 규명이 필요하다.⁸¹⁾ 다음

79) 폴 마샬, “천직, 일, 그리고 직업”, 39.

80) Miroslav Volf, *Work in Spirit*, 116-117, 190.

81) 정예지,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직무 성과와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섹션은 이 점에 착안하여 성과가 유발하는 만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업무 성과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직업인의 자기 개발과 업무역량 제고이기에 이 조건을 촉진하고 조성하는 관점의 수용과 실천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도를 위해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활동적인 삶’과 ‘명상적인 삶’에 관해 논의하고 양자의 유기적 관계 및 통합 모델을 가능한 대안의 하나로 제시하고자 한다.

2.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활동적인 삶’과 ‘명상적인 삶’의 균형⁸²⁾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일과 삶’이 이분법적으로 인식될 때 양자 간 균형을 추구해도 분리를 전제로 하기에 여전히 한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분법적이고 편향의 가능성 속에 있는 ‘일과 삶의 균형’ 개념과 달리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된 ‘활동적인 삶’과 ‘명상적인 삶’의 균형 구조에서는 일과 삶 양자가 서로를 지향하여 일치와 조화를 추구하기에 구별은 되나 본질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통합을 내포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

우선, 공적 삶의 영역과의 관련성을 지니는 일/직업에 대한 논의는 공공신학적인 주제로 인식되며⁸³⁾ ‘일/직업’에 대한 이해와 ‘소명’의 적용범

1492.

82) 여기서는 공공신학(public theology)에 관해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 공공신학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보라.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Lanham, Marylan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xi.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를 위해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하라. Max L. Stackhouse, *Globalization and Grace* (New York: Continuum, 2007;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8).

83) 이에 관해 다음을 보라. Max L. Stakchouse, *Globalization and Grace*, 이상훈, 『세계화와 은총』(서울: 북코리아, 2013), 265-268; Deidre King Hainsworth and Scott R. Paeth eds., *Public Theology for a Global Society*(Grand Rapid: Ederdmans, 2010),

위와 개념의 지평을 넓히는 시도인 ‘명상적인 삶’과 ‘활동적인 삶’의 균형 이슈는 기독교적 확신과 그것의 사회적 실현의 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신학적 요소를 담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의미의 소명은 ‘고립된 경건’을 선택하거나 ‘종교적 성역’ 안으로 퇴거함으로 교회와 사적인 삶의 공간으로 내향(內向)하는 성화로 머물려는 흐름에 저항하며⁸⁴⁾ 유·무급의 ‘활동적인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에 복무하는 노력을 추천하는 점에서 공공신학적이다. 위의 시각은 ‘활동적인 삶’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강조와 더불어 ‘명상적인 삶’과의 양자 간 균형이나 통합적 이해가 전제된다. 그러면 이러한 균형 혹은 통합은 어떠한 원칙과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볼프의 성령론적(pneumatological) 이해가 내용으로 하는 관점에 기초하여 위의 질문이 제시하는 과제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성령론적 관점에서 일과 일 이외의 영역으로서의 여가활동(leisure activity)(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가활동의 한 형태인 예배)은 본질적이고 실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특성이고 표현이다.⁸⁵⁾ 이를 테면 “하늘에 있는 것과 지상에 있는 것을 통합하는 성령에의 참여 시간인 예배”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어 일이 창조적 활동이 되도록 돕는다.⁸⁶⁾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직업인)를 변화시켜 세상의 변화를 위해 일하도록 하신다.⁸⁷⁾ 볼프에게 있어 여가활동의 한 형태로서 예배는 동떨어진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타 분야, 특히 일/직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xiii-xiv.

84) 소명의 공공신학적 의미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이상훈, “공공신학적 주제로서의 소명과 코이노니아 관점에서 본 고령화사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8집(2014), 216; Stanley Grenz,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213.

85) Volf, *Work in Spirit*, 139.

86) 위의 책, 140.

87) 같은 책.

은 당연하다.⁸⁸⁾ 볼프는 경제적인 것을 포함한 인간이 하는 다양한 활동을 성령의 역사(operation)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⁸⁹⁾ 그런데 전 피조 세계가 성령의 사역의 범위 내에 머물기 때문에 성령의 활동에 의한 것은 종교적 경험 뿐 아니라 세상의 참여와 활동까지도 포함하므로 성령과 경제적 활동 혹은 일/직업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은 결코 낮설지 않으며 오히려 마땅하다.⁹⁰⁾

이처럼 성령은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력을 지니고 “영적 가치”의 중요성에 관해 인식하도록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다는 이해 안에서 각자가 잠재력을 개발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존재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또 이것은 모든 개인이 “성장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⁹¹⁾ 위의 시각은 직업인 혹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기개발을 통한 업무 역량과 직무성과의 제고를 기할 수 있는 노동의 인간화를 전제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자기 개발”은 자신만의 ‘일’과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 이외의 영역으로서) 공동체와 타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⁹²⁾ 자기 개발이 타자를 위한 것, 즉 공동의 선을 위하지 않으면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우리 각자의 참된 본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⁹³⁾ 이러한 의미에서 일을 타자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소명 개념이 그러나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오직 하나의 부름(소명)만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너무 정적”(static)이어서

88) 같은 책. 미로슬라브 볼프는 “여가(leisure)”에 관해 “즐겁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거나 개발하는 것”, “기쁨으로 참여하는 상호 간의 유대와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영적인 친교”를 누리는 것을 포함한다(위의 책, 136).

89) 위의 책, 89.

90) 위의 책, 104.

91) 위의 책, 178.

92) 위의 책, 186.

93) 같은 책.

현대사회에 적용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⁹⁴⁾ 반면 일/직업에 대한 성령론적 접근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synchronic) 일생 여러 차례 직업을 바꾸는(diachronic) 것을 허용하고 격려하되 공동의 선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⁹⁵⁾ 이러한 시각에서 은사란 성령께서 부르시고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목적인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포함한다.⁹⁶⁾ 은사를 받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의무를 지는 것이며 섬김이야말로 은사가 참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기⁹⁷⁾ 은사는 한 사람을 보다 큰 공동체와 이어주고 그 공동체 전체 안에서 각자의 은사는 전체의 선에 기여하게 된다.⁹⁸⁾

성령은 은사를 주셔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창조적 역량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하고 일 이외의 영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향유하도록 하며 특히 공동체를 형성하고 상호 관계를 맺어 가도록 하시기에 성령의 은사 안에서 ‘활동적인 삶’과 ‘명상적인 삶’은 통합되고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성령의 은사로 간주되는 성령의 사역의 관점에서 볼 때, 이처럼 ‘활동적인 삶’과 ‘명상적인 삶’이 하나가 되고 상호 의존적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일/직업과 예배를 포함한 일 이외의 영역 전체를 운행하고 이루어가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은 공동체와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도록 봉사의 삶과 공동선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일/직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사회적)행복의 실현, 즉 이분법을 넘어 유기적 관계 속에서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도록 활동적인 삶과 명상적인 삶의 조화를 통해 돕는다. 이러한 틀에서 일과 일 이외의 영역의 모든

94) 위의 책, 189-190.

95) 위의 책, 190.

96) 같은 책.

97) 같은 책.

98) 같은 책.

것은 하나로 이어지며 상호 교호적이고 의존적이며 분리되거나 배타적이거나 시간과 에너지나 자원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경쟁적이 됨으로써 편향되거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다. 동일한 성령을 통한 일과 삶이기에 ‘활동적인 삶’과 ‘명상적인 삶’은 유기적 통합관계를 지향하는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되며 일과 삶의 균형이 갖는 이분법이 극복되어진다.

이처럼 ‘일과 삶’의 관계 혹은 균형의 이슈와 관련하여 성령론적 접근에 의한 ‘활동적인 삶’과 ‘명상적인 삶’의 조화와 통합은 ‘일과 삶’을 상호 배타적이거나 이원론적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로 설정하기에 서로 간의 경계가 도식적이지 않고, 서로를 보다 더 강화시키고 확보하려 하지 않으나 서로를 ‘위한’ 서로의 영역이 강화 및 확보되는 관계로 설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전통적인 직업 이해나 정의에 불가결한 요소인 ‘소득 발생’이 따르는 일이나 활동을 전제함으로 자원봉사와 취미 등의 무급 활동을 일/직업과 엄격히 분리시키는 시도는 재고되어야 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점점 직업의 비정규화가 심화되고 자원봉사와 취미활동이 직업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어 이러한 활동과 일/직업에 대한 이분법적 분리 시도는 직업/일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과 직업 창출 및 노동 시장 재진입 노력에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적인 삶’과 ‘명상적인 삶’의 균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양자 간의 통합 모델은 이분법적 분리와 그로 인한 한 쪽으로의 편향 가능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힘든 ‘일과 삶의 균형’ 모델을 적절히 보완하기에 이 주제에 요구되는 설득력 있는 대안적 근거로 제공될 수 있다. 성령론적 접근에 따른 ‘활동적인 삶’과 ‘명상적인 삶’의 균형에 대한 공공신학적 이해는 일과 삶의 균형에서 발견되는 이분법적 인식과 다른 메커니즘으로 운영되기에 일과 일 이외의 삶과 활동(봉사나 취미 등) 간의 유기적이고 경계를 넘나드는 창조적인 관계를 도출한다. 성령론적 시각에서 ‘활동적

인 삶과 ‘명상적인 삶’의 관계는 ‘일과 삶의 균형’ 패러다임을 넘어 후자의 이분법적 경직성을 유기적 상호성과 창조적인 넘나들음으로 재설정한다. 그래서 닫힌 일/직업에 대한 이해 혹은 일의 경직성을 극복하게 함으로 늘 전직과 이직을 통한 새로운 일/직업을 준비하고 재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적절한 원칙과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V. 결 론

본 논문은 베이비붐세대가 행복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형성을 위한 공공신학적 제안을 시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이 주제와 관련된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해 살펴보고 일과 삶에 대한 이분법적 이해가 지닌 한계의 극복을 시도하기 위해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된 ‘활동적인 삶’(vita activa)과 ‘명상적인 삶’(vita contemplativa)의 상호성을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일과 삶’ 양자가 상호 이질적이고 배타적으로 인식되는 관계는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통합적 이해의 모색을 거쳐 삶의 질과 업무 성과의 제고에 기여하는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유기적 관계의 재설정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과 일의 신학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인식을 정립할 수 있는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방안의 강구는 비인간화된 노동하는 인간, 즉 ‘호모 라보란스’에 치우친 일에 대한 관점을 극복하고 기독교적 ‘일’ 이해와 일과 삶의 균형 개념, 즉 일 이외의 영역과 ‘직업/일’이 구분되나 반드시 분리되거나 상호 배타적일 필요가 없다는 논의의 구체화를 위한 모색이었다. 이러한 모색은 ‘활동적인 삶’과 ‘명상적인 삶’의 균형을 기초로 경제활동이라는 일차적인 목적과 더불어 일/직업에 있어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는 삶의 질과 의미가 내포되고 실현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생활 모델 형성을 위한 공공신학적 시도가

다. 따라서 공공신학적 접근과 해석은 생계를 위해 불가피한 노동인 무의미한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 대신 가치와 보람을 발견하고 자아실현을 함께 추구하는 통합적 관점 속에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후 제2인생을 사회에 기여하는 비경제적인 봉사나 재능기부 등 의미 있는 활동과 동시에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 재진입을 통한 직업 활동에서 삶의 질 제고와 행복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김동선·모선희, “연령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령자 고용차별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23 (2012), 93-112.
- 김종관·이윤경, “업무구조, 조직문화, WLB제도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16권 4호(2009), 57-77.
- 김주현, “연령주의(Ageism) 관점을 통한 노년이해”. 『사회와 역사』 제82집(2009), 361-391.
- 김지경, “베이비붐세대의 경제적 부양부담”. 『노동리뷰』, 2010년 6월호, 21-36.
- 김재영 편저, 『직업과 소명』. 서울: IVP, 1989.
- 김태유, 『은퇴가 없는 나라-국가 경제를 이모작하라』.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3.
- 방하남 외,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 생애와 은퇴 과정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1.
- _____.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 생애 (Work Life)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
- 세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 _____.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8.
- 손영미 외, 『일과 삶의 균형정책 도입방안 연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6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下)(2006. 12): 987-1000.
- 손유미·김찬훈,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창출과 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 손유미·이성, “베이비붐세대 제2인생설계구축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 송호근, 『그들은 소리 내 울지 않는다』. 서울: 이와우, 2013.
- 이상훈, “공공신학적 주제로서의 소명과 코이노니아 관점에서 본 고령화사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8집(2014), 193-230.
- “베이비붐세대의 직업인식 변화필요성: 호모라보란스(Homo Laborans)와 호모루덴스(Homo Ludens)의 통합적 이해”. 『기독교사회윤리』 제35집(2016), 311-345.
- 이형기, 『중세사회의 직업관과 루터신학에 있어서의 직업이해』. 오성춘 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136-189.

- 정성호. 『중년의 사회학』. 서울: 살림, 2006.
- 정예지 외.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직무 성과와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직무 만족과 생활 만족 간 긍정적 교호작용효과(Positive Reciprocal Effect)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45권 제5호 (2016), 1471-1499.
- Applewhite, Ashton/ 이은진 역.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 서울: 시공사, 2016.
- Bok, Derek/ 추홍희 역. 『행복 국가를 정치하라』 서울: 지안, 2011.
- Brooks, David/ 김희정 역. 『인간의 품격』 서울: 부키, 2015.
- Buford, Bob/ 이중순 역. 『40, 또 다른 출발점』. 서울: 북서넷, 2003.
- Cohen, Patricia/ 권혁 역. 『나이를 속이는 나이: 만들어진 시간, 중년에 관한 오해와 진실』 서울: 돌출새김, 2014.
- Graton, Linda and Andres Scott/안세민 역. 『100세 인생: 저주가 아닌 선물』 서울: 클, 2017.
- Gregory, Raymond F. *Age Discrimination in the American Workplace: Old at a Young Age*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2001.
- Grenz, Stanley/ 신원하 역.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서울: IVP, 2001.
- Hainsworth, Deidre King and Scott R. Paeth eds. *Public Theology for a Global Society*. Grand Rapid: Edermans, 2010.
- Magnus, George/홍지수 역. 『고령화시대의 경제학』. 서울: 부키, 2010.
- Migliore, Daniel L. *Faith Seeking Understanding*. Grand Rapids: Eerdmans, 1998.
- Nelson, Todd D. ed.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Cambridge: The MIT Press, 2004.
- Palmore, Erdman B.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99.
- Pearcey, Nancy R./홍병룡 역. 『완전한 진리』. 서울: 복있는 사람, 2006.
- Sadler, William/ 김경숙 역. 『서드 에이지, 마흔이후 30년』, 서울: 사이, 2006.
- _____, James H. Kreffit/ 김경숙 역. 『핫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 서울: 사이, 2008.
- Schirmacher, Frank/ 장혜경 역. 『고령 사회 2018: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 서울: 나무생각, 2011.

Stackhouse, Max L.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Lanham, Marylan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_____. with Lawrence M. Stratton, *Capitalism, Civil Society, Religion, and the Poor: A Bibliographical Essay*. Wilmington, Delaware: Intercollegiate Studies Institute, 2002.

_____/ 이상훈 역. 『글로벌시대의 공공신학: 세계화와 은총』서울: 북코리아, 2013.

Strauch, Barbara/ 김미선 역.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 뇌과학이 밝혀낸 중년 뇌의 놀라운 능력』서울: 해나무, 2011.

Volf, Miroslav. *Work in Spirit: Toward a Theology of Work*. Eugene,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1.

논문투고일: 2017년 02월 27일

심사게시일: 2017년 0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7년 04월 07일

• 국 문 초 록 •

샌드위치 세대로서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들은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돌봄의 책임을 동시에 떠맡아야 해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은 불충분한 노후준비로 퇴직 후 재취업의 필요성은 높음에 반해 연령주의와 좁은 기회의 문 등 비우호적인 사회경제적 현실로 실제 구직 가능성은 낮은 데다 구직에 성공한 임금 근로자의 40%가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돼 재취업 환경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 비우호적인 사회경제적 현실과 조건은 일과 직업에 대한 기존의 생계 혹은 경제적 측면에 치우친 시각을 연장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기본적인 생활의 확보를 위한 일자리가 제공되면서 동시에 이러한 경제 활동이 삶의 다른 분야와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일과 삶의 균형’(WLB · Work-Life Balance)이 제안되고 있다. 그런데 ‘일과 삶의 균형’(WLB · Work-Life Balance)은 본질적으로 양자의 이원론적 분리와 이질성을 전제하기에 여전히 한 쪽으로 치우칠 여지와 가능성 속에 머물고 있다. 기존의 일 중심적 정체성의 한국의 베이비부머의 경우 계속되는 생계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뛰어드는 제2의 경제활동은 일과 삶의 불균형 혹은 비인간화시키는 노동과 ‘고된’ 일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일과 삶의 균형’이 낳을 수 있는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혹은 이분법적 이해와 틀을 극복하고 직업인들의 “자기주도성”과 자기 개발을 통한 ‘성장’을 동시에 가져오기 위한 시도로서 ‘활동적인 삶(vita activa)’과 ‘명상적인 삶(vita contemplativa)’의 유기적 관계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베이비부머들이 일/직업적으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면서 동시에 삶의 질과 행복을 얻기 위한 이러한 양자의 통합적 관점의 이론적 근거를 제안하는 시도로 일에 대한 ‘성령론적’ 이해에 주목하되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주제어: 일과 삶의 균형, 베이비부머, 활동적인 삶, 명상적인 삶, 공공신학, 일, 직업, 성령론
